

“이베로아메리카 K팝 페스티벌”, 혁신적인 음악축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특정 1개국이 아니고, 또 불특정 다수 국가도 아닌 언어와 문화로 엮여져서 그 어느 지역보다 유대감이 강한 이베로아메리카 21개국 전체의 2만 5000여명 한류 팬들이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상이하지만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K-팝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종률 주스페인한국문화원장)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개최...2만5천여명 접속

‘내년엔 더 많은 K-팝 커버팀 초청’ 요청 쇄도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감동 메시지 전했다”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이 연 K-팝 온라인 콘서트 ‘K-팝 코넥타: 이베로아메리카 K-팝 스타즈 페스티벌’(K-팝 코넥타)이 성료했다.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지난 5일(현지시간) 이베로아메리카(스페인어 사용국과 브라질) 21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콘서트에 한류팬 2만5000여명이 접속했다.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4개국을 비롯해 이베로아메리카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한국문화 향유 기회가 제한적인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니카라과와 미수교국 쿠바 등 중남미 전체 국가에서 K팝 팬들이 접속했다.

이종률 원장은 “인구 6억5000만 규모의 이베로아메리카는 ‘아시아의 라틴노’라고 불리는 한국인과 정서상의 유사점이 많아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를 제외하면 한류 확산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K-팝 코넥타’는 코로나19 사태로 특히나 큰 피해를 입은 이베로아메리카 반도와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한류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K-팝을 통해 연대와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베로아메리카 사무국(SEGIB)과 스페인과 중남미 9개국에 지부를 둔 이베로아메리카 대표 음악방송국 로스 콰렌타(LOS40)가 함께했다. 나아가 이베로아메리카 지역 이외에도 전

체 관객의 약 3%가 미국, 프랑스, 가봉, 이스라엘,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목을 끌었다.

당일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4개국을 대표하는 K-팝 커버 8개 팀의 공연 영상이 상영됐다.

특히 참가자들의 공연 영상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에서 촬영돼 시청의 묘미를 더했다.

스페인의 레알 궁전과 마요르 광장,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광장, 아르헨티나 크리스토폴 콜론 동상, 브라질 상파울로의 스카이라인이 훤히 보이는 촬영 장소 등 ‘K-팝 메이드 인 이베로아메리카’의 관공요소를 극대화했다.

또한 콘서트 후반부에는 8개 팀 참가자 전원 37명이 세븐틴의 ‘레프트 & 라이트(Left & Right)’ 곡에 맞춰 릴레이 댄스를 추는 영상이 상영됐다.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모임과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참가자들은 각자의 집에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개인 릴레이 댄스를 이어갔는데, 영상편집으로나마 전원이 함께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전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라는 의미에서 ‘Strong, safe, together(스트롱, 세이프, 투게더)’라는 댓글들이 수시로 올라왔



스페인팀 공연. (사진 =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제공)

다.

“문화는 위로입니다”(Zuly Malaver), “K-팝으로 하나 된 우리,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Yoly), “코로나19로 우울했는데 K-팝을 좋아하는 전 세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벽차요!”(Almu), “한국, 감사합니다!”(Yvette), “우리 함께 극복해요!”(Ana Gabriel) 등의 댓글들이 차례로 이어졌다. 또한 페루,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국가들의 K-팝 커버 팀들을 초청해달라”는 요청도 쇄도했다.

‘K-팝 코넥타’는 행사 개최 이전부터 이베로아메리카 한류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행사 MC로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유명한 한류 유튜버 ‘지니체널’(유튜브 구독자 91만명)이 초청됐다.

외국인 K-팝 서바이벌 오디션 ‘탐골 랩소디’에서 1대 가왕으로 등극해 국내에서도 크게 화자된 스페인 출신 인기 유튜버 라라 베니토(유튜브 구독자 28만명)의 응원 영상이 더불어, 중남미 지역에서도 특히 탄탄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ATEEZ)’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팬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직접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축전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베로아메리카 권역을 대표하는 국제기구 수장이 K-팝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코스타리카 부통령과 UN 사무차장 겸 UNDP 부총재를 역임한 이베로아메리카 사무국(SEGIB)의 레베카 그린스판 사무총장은 자체 제작한 축하 동영상 통해 “이베로아메리카는 한국을 제외하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젊은이들의 K-팝에 대한 애정이 높고, 재능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K-팝과 이베로아메리카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 아니라, 한국과 이베로아메리카 지역 간 우정이 더욱 공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에 대한 관심도 컸다. 스페인 내에서만 약 300만 명의 청취자를 확보하고, 중남미 아메리카 9개국에도 방송을 송출하는 인기 라디오 방송국 LOS40는 행사 관련 기획특집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

또한 스페인 3대 일간지 ‘아베세(ABC)’는 지난 5일자 온라인 보도를 통해 “코로나19로 문화향유 기회가 줄어든 가운데, 한국문화와 K-팝을 통해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극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혁신적인 음악축제”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문화강국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 및 보건 환경 등에 쏠린 관심이 문화 분야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유력 일간 ‘엘 페이스(EL PAIS)’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아이콘(ICON)’ 4월호는 ‘문화강국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제하의 한국문화특집을 4개면 전면에 걸쳐 게재하면서 ‘한국은 소프트 파워로 굳어 있지 않게 세계를 침략한, 알미를 정도의 매력적인 국가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정은, 3년만에 안방복귀...‘나의 위험한 아내’ 10월 첫방

이 시대 다수의 부부 공감할 수 있는 미스터리 부부 잔혹극

텔런트 김정은의 안방극장 복귀작 MBN 새 월화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의 촬영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제작사 키이스트 측은 3년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김정은의 촬영에 대해 “깊은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캐릭터 성격을 확실하게 표현해내는 김정은의 활약에 ‘역시 김정은’이란 찬사가 터져 나왔다”며 “오직 김정은에게만 탄생시킬 수 있는, 김정은 표 심재경을 기대해달라”고 7일 밝혔다.

‘나의 위험한 아내’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느덧 결혼이란 생활을 그저 유지하고만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의 부부가 공감할 수 있는 미스터리 부부 잔혹극이다. 10월5일 처음 방송될 예정이다.

김정은은 극중 빼어난 지성과 미모, 어진 심성 뿐 아니라 재력까지 갖춘 모태 금수저, ‘심재경’ 역을 맡았다. 심재경은 사랑하는 남편과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중 미스터리한 남치 사건에 휘말린다.

‘나의 위험한 아내’ 제작진이 이날 공개한 김정은 사진들은 7월 용인시에 있는 세트장에서 촬영됐다.

사진들에는 극중 심재경이 남편과의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인 장면이 담겼다.

체크무늬 블라우스에 만다나 헤어밴드를 두른 차림새로 심재경은 남편과 함께하는 둘만의 식사 시간이 즐거운 듯 환한 미소를 띠고 있다.

제작진은 “김정은이 촬영 내내 에너지를 북돋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어, 특히 상대 배우 최원영과 대가실에서 수차례 대본 연습을 마친 후 적절 맞는 연기 호흡을 선보였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 분들이 워낙 따뜻하게 맞아 주신 덕분에, 긴장감이 즐거운 실력으로 바뀌었다”며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라하는 타이틀을 연기하게 됐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이어 “많은 극적인 요소가 있는 작품이기에, 시청자들이 심재경이라는 캐릭터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도록 연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이핑크 김남주, 9년만에 솔로 출격...첫 싱글 ‘버드’

동양적 요소 적절히 가미된 트랩 장르의 곡

그들 ‘에이핑크(Apink)’의 김남주가 데뷔 9년 만에 솔로로 나선다. 7일 오후 6시 첫 싱글 ‘버드(Bird)’를 공개했다.

김남주는 뛰어난 댄스, 보컬 실력과 무대 장악력을 갖춘 그룹 내 ‘만능 퍼포머’로 통한다. 정은지, 오하영에 이어 그룹 내 세 번째 주자로 솔로 출격하게 됐다.

그녀의 첫 싱글 ‘버드’에는 솔로 아티스트 김남주가 거침없는 날갯짓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동명의 타이틀곡 ‘버드’는 동양적 요소가 적절히 가미된 트랩 장르의 곡이다. 사랑하는 모든 것과 ‘꿈’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비상하겠다는 자전적인 메시지를 녹였다.

더불어 이번 김남주의 신곡 작업에는 대세 후배 걸그룹 (여자)아이들 소연, 히트 작곡가 빅산초,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의 수석 안무가 리아킴 등 쟁쟁한 라인업이 힘을 보탤

이효리, 결국 SNS 계정 삭제...접속 불가능 화면만

중국 누리꾼들 악플공격 지속돼

가수 이효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이 사라졌다.

6일 이효리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을 때 나타나는 접속 불가능 화면이 표시된다. 이효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막설

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일 “앞으로 3일쯤 기한을 두고 인스타그램을 그만하려고 한다”면서 “늘 소식 묵막라 하는 팬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공간인데 이거 은근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쉽지가 않다. 다른 방식의 소통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늘 부족한 저를 보려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예뻐해주셔서 감사하다. 씩소리 해주신 분들도 고맙다”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굳건히 지키는 자리 지켜나가시길 바란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고 전했다.

이효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생활과 제 주도의 일상 등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그러나 최근 노래방에서 한 라이브 방송 등 잇단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이효리는 “눈먼 뭐하니?”에서 “마오”를 언급했고, 이후 중국 누리꾼들의 악플 공격이 지속됐다.

광주극장, 국제영화제 수상작 6편 상영

광주지역 유일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이 국제영화제 수상작을 잇따라 상영한다.

광주극장은 10일부터 17일까지 제65회 아카데미시상식 3관왕을 받은 ‘하위즈 엔드’를 비롯해 세계 영화제 16개부분을 휩쓴 ‘테스 & 보낸 여’ ‘공포분자’ ‘도망친 여자’ 등 6편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이 제작과 연출을 맡은 세대극 ‘하위즈 엔드’는 20세기 초 영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과 자유를 찾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솔레렐 가의 ‘마거릿’과 ‘헬렌’ 자매가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클래식 로맨스 드라마다.

제65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엠마 톰슨), 각색상(루스 프라우어 자발라), 미술상을 받았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아동문학가 안나 알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스티븐 바우터루드가 연출을 맡은 ‘테스 & 보낸 여’는 4차원 소년 ‘샘’이 우연히 만난 소녀 ‘테스’ & 보낸 특별한 여름휴가를 담고 있다.

‘죽음과 외로움’이라는 묵직한 고민을 동화 같은 전개로 풀어낸 영화로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의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문 국제심사위원 특별연급상을 비롯해 전 세계 영화제 통산 16개 부분을 수상했다.

할리우드 액션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제64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작품 ‘드라이브’는 니콜라스 윌딩 레전 감독이 스타일리시한 감성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영상으로 전달해 화제를 모았다.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감독상을 수상한 홍상수 감독의 24번째 장편영화 ‘도망친 여자’는 결혼 후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던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두 번의 약속된 만남,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과거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김희를 따라간다.

이 밖에도 광주극장은 1986년 작품 ‘공포분자’를 34년만에 소개한다.

작품은 소녀의 장난 전화 한 통이 불러온 네 남녀의 기묘한 파장과 비극을 그린 영화로 에드워드 양 감독 특유의 미학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작품 개봉 당시 금마장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은표상, 아시아태평양 영화제 각본상 등 세계 유수 영화제를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상영일이 한차례 연기되었던 ‘해피 아워’는 12일 오후 1시40분 상영된다.

작품은 평범한 일상에서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최우수여배우상을 수상했다.

뉴시스